

“더는 빛 못 깊아”...올해 중기 법인 파산 신청 40% ↑

중기 은행 대출 잔액 1006조원 사상 최대...광주지역 2개월간 13건 폐업 공제금 지급 2만4253건·3117억원...전년보다 23.5% 늘어

올해 들어 중소기업 파산 신청이 40% 넘게 증가했다. 소상공인이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을 통해 폐업 사유로 받은 공제금도 20% 이상 늘었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법원에서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동기(205건) 대비 40.5% 늘었다. 광주지방법원에는 2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인 10건보다 30% 늘어난 13건이 신청됐다.

파산 신청을 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전국적으로 2021년 955건에서 2022년 1004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1657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신청 건수는 10년 전의 3.6배에 이른다. 광주도 지난해 48건으로 2014년 22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기 전에 고금리와 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가 닥쳐 매출과 영업이익 회

복이 낮아지면서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평균 5.28%로 2022년 10월부터 16개월 연속 5% 선을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2021년 1월 2.9%에서 2022년 1월 3.52%로 오른 데 이어 지난해 1월 5.67%로 급등했고 1월에도 5%대를 유지 중이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 달 말 1006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11월 말(1003조8000억원)

의 종전 기록을 갈아치웠다. 문제는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파산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폐업 사유로 공제금을 받는 소상공인도 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311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3.5% 늘었다. 지급 건수는 2만4253건으로 16.4% 증가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

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해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전년 대비 30.1% 증가한 1조26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고 지급 건수는 20.7% 늘어난 11만1500건으로 10만건을 처음 웃돌았다. 양 의원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와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내수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갈수록 극심한 상황”이라며 “내수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새콤달콤 만감류 맛보세요” 25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한라봉, 설국향, 청굴 등 다양한 만감류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점 지하 1층 청과매장은 오는 31일까지 한라봉과 감골보다 달면서도 오렌지 특유의 새콤함을 갖춘 설국향, 단단한 과육에 단맛이 특징인 미국산 만다린 등 국내외 다양한 만감류 품종들을 만나볼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강필서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시건축사회장 선출

강필서(사진) 건축사가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제 18대 회장에 선출됐다.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22일 제 37회 정기총회를 열고 4명의 회장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강필서 후보자를 신입회장으로 선출했다. 강 신임회장은 전남대 건축학과 동대학원 건축공학 석사 수료생이다. 광주건축사회 부회장과 이사, 광주건축사신용협동조합 부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광주시 건축위원회, 공공디자인심의 위원, 광주 남구청 해체-경관 심의위원, 장애인고용공단 기술위원회 위원, 중앙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등



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필서 회장은 “약속과 원칙을 지키고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내어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광주건축사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광주시 지역건축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 회장의 임기는 3년이며 오는 4월 1일 취임식을 갖는다. 한편, 정인재 현 회장은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김민석 기자 mskim@

‘삼시세끼’는 옛말...MZ세대 하루 1.4끼 먹는다

60세 이상 2.27회

하루 평균 쌀을 섭취하는 끼니 수가 60세 이상은 2.27회, 'MZ' 세대는 1.43회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발표한 ‘하루 세끼, 우리는 쌀을 어떻게 소비할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하루 평균 쌀 섭취 끼니 수는 1.86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쌀 섭취 끼니 수를 연령별로 보면 18~39세가 1.43회로 가장 낮았고, 60세 이상은 2.27회로 가장 높았다.

그 외 연령대에서는 5세 이하가 2.26회, 6~17세(1.96회), 40~59세(1.91회)로 집계됐다.

성별로 나뉘면 남자가 1.92회로 여자(1.80회)보다 높았다.

삼시세끼 쌀을 먹는 국민이 드물다보니, 쌀 섭취량도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지난 1970년 136.4kg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2022년에는 그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56.7kg을 기록했다. 쌀을 대체하는 먹거리의 등장도 쌀 섭취량 감소

의 원인이지만, 아침식사 결식 비율이 지속 상승한 것도 눈에 띈다.

아침식사 결식 비율은 지난 2013년 22.5%를 기록했지만, 2020년에는 30.9%에 달해 국민 3명 중 1명은 아침밥을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심식사 중 외식 끼니 비율이 49.9%로 내식 42.4%를 웃돌았으며, 점심 외식 끼니 비율 중 9.6%는 쌀을 섭취하지 않는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녁식사는 내식 끼니 비율이 66.7%로 외식(27.9%)을 2배 이상 웃돌았지만, 내식과 외식을 통틀어 쌀을 섭취하지 않는 저녁식사 비중이 25.9%에 달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37.57 (-10.99)
↑ 코스닥	913.69 (+9.71)
↑ 금리(국고채 3년)	3.290 (+0.006)
↑ 환율(USD)	1342.10 (+3.70)

실적 부진 '1위' 이마트,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 실시

이마트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全)사적인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이날 오후 희망퇴직 공고를 게시했다.

이마트는 근속 15년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자에게는 월 급여 24개월만큼의 특별퇴직금과 함께 생활지원금 2500만원, 직급별 전직 지원금 1000만~3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마트는 지난 1993년 설립 이후 첫 전사 희망퇴직을 진행해 인력 효율화를 통한 구조 개선을 고

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는 지난해 29조4000억원의 역대 매출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신세계건설이 대규모 손실을 보면서 연결 기준 첫 연간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영업손실(연결기준)은 469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보다 27.4% 감소한 1880억원을 기록했다.

이마트는 실적 부진에 직원 수를 꾸준히 줄여가고 있었다. 지난 2019년 6월 말 기준 2만5000명이던 직원수는 2022년 말 2만3000명, 지난해 말에

는 2만2000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이마트 점포 수 역시 지난 2019년 158개에서 지난해 말 155개로 줄었다. 지난 22일에는 나이스 신용평가가 이마트 신용등급을 기존 AA(부정적)에서 AA-(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부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마트가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 위기를 맞아 효율적인 운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사적인 희망퇴직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